



제주바다의 가을 15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김녕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제주 가을 바다를 한껏 느끼고 있다.

강희만기자

“버려지는 재생에너지... 수용성 개선 시급”

어제 국정감사에서 제주 풍력발전 강제 중지 문제 지적 김성환 “본계통 송전 임시방편... 운영능력 마련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주 재생에너지 수용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병)은 15일 한국전력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전국을 웃도는 수치이지만 계통 수용성 부족으로 발전기를 강제로 멈춰 세워 버려지는 풍력발전량 또한 만만치 않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의 풍력발전을 강제로 중지하는 횟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은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 능력 대비 미흡에 원인이 있다”며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제주지역에서 멀쩡하게 돌아가는 풍력발전소의 전기를 버린 양은 1만3166MWh에 달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제주도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제주계통이 수용가능한 재생에너지 한계량은 최대 590MW로 추산된다. 올해 8월 기준 제주에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600.3MW로 이미 최대운전가능량을 초과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재 가동 중인 풍력발전소의 발전량도 버거운 운영 수준으로 앞으로 지어질 풍력발전소는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의문”이라며 본계통에서 제주계통 방향으로만 운영되던 기존 송전선까지도 역송에 이용하는 방안이 더해 제주계통 내 계통운영능력을 마련해야 본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2년말 개통될 제3송전선뿐만 아니라 본계통에서 제주계통 방향으로만 운영되던 기존 송전선까지 역송에 이용하는 방안이 마련해야 향후

제주에서 늘어날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본계통 송전은 급한 불 끄기일 뿐, 제주계통 내에서 재생에너지시대에 맞는 계통운영능력을 마련하는 것이 본질적 해결”이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 재생에너지 확대 기류와 한국판 그린뉴딜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피할 수 없는 미래인데, 이에 대한 대비 없이 발전소 전원을 끄다 켜다만 반복한다면 전력거래소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일 뿐”이라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수용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산업부, 제주도, 한전, 전력거래소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법률·행정 상담, 무료로 받으세요”

도, 주민상담실 연중 운영 비대면 전화 상담서비스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감정평가·행정 등 전문분야를 무료로 상담해주는 ‘주민상담실’을 도청 민원실 내에 설치해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상담실은 전문상담관(법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들로 구성됐으며, 민원인이 직접 전문가 사무실을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민원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상담은 방문, 전화(710-3697-8), 팩스(710-3015)로도 접수할 수 있다.

특히 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비대면 전화 상담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올해 비대면 전화상담 건수는 전체 상담건수 대

비 67.7%로 전년 대비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면상담 시 전문상담관과 민원인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말차단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

송중식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로 불안한 시기임에도 전문상담을 원하는 도민들이 많아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언택트 방식으로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상담실은 2014년 8월 11일 개설돼 지난달까지 총 4425건을 상담했다.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불평·불만 고충 접수, 민원처리절차 안내 등 행정 분야가 2256건(51%)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 민사(토지, 건물 등), 가사(혼인, 이혼 등) 등 법률분야는 1518건(34.3%), 세무·감정평가 분야는 651건(14.7%) 순이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관광공사 사장 내정자 인사청문 예고

도의회 오는 28일 개최키로

제5대 제주관광공사 사장 내정자인 제주출신 고은숙 제일기획 자문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8일 열린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5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 인

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을 채택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3일 고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고 내정자는 제일기획 익스피리언스 비즈니스 그룹장, 유니체널비즈니스 BB비즈니스본부장(임원) 및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통합마케팅 전문가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코로나 악재 크루즈산업, 원점 재검토를”

도의회 농수축경제위

김경미 “새 전략 수립해야” 어업지도선 단속실적 ‘0건’ 불법어업 단속 제역할 못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에 이어 코로나19 악재로 위기에 빠진 크루즈산업 육성 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열린 제388회 임시

회 해양수산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창한 구호 대신 내실있게 크루즈산업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국제크루즈 기항횟수 급감, 코로나19 사태 등 급변하는 상황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국제 크루즈선 입항 현황은 2016년 507회로 정점을 찍고 이후 사드 사태로 중국발 크루즈선의 제주 입항이 중단된 2017년부터는 98



김경미 의원



김용범 의원



현길호 위원장

회, 2018년 20회, 2019년 29회로 급락했다. 올해의 경우 당초 497회의 크루즈선 입항이 예정돼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제주에 들어온 국제 크루즈선은 전무한 상태.

이날 김 의원은 “2012년부터 2020

년까지 예산 투입 현황을 보면 국비와 도비 등 총 2460억원이 투입됐는데 크루즈 기항 체류 시간을 보면 6~8시간이 대부분이며, 체류시간 내 면세점 쇼핑을 하는 것이 1순위로 나타나고 있어 결국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형국이라는 도민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어업지도선의 역할론도 도마에 올랐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과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제주도 어업지도선인 삼다호와 영주호의 불법 어업 단속 행정이 거의 전무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3년간 지도선의 단속건수는 영주호는 2018년 10건, 2019년 1건에서 올해(8월말 기준) 0건, 삼다호는 3년째 0건이다. 오은지기자

제주도 뮤지컬 대본 공모 당선작에 ‘산호해녀’ 선정

제주도는 브랜드 뮤지컬 대본 공모사업 당선작으로 ‘산호해녀’(이희민 작·임다해 곡)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재공모에 따른 것으로 총 15편의 응모작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당선작에는 4000만원의 지원금이 수여된다.

‘산호해녀’는 지속가능성과 작품화 발전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작품은 해녀 흥가에 용왕에게 받은 영험한 힘을 가진 산호마름에 퍼진 마마병을 퇴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뮤지컬 대본이 결정됨에 따라 내년 초연을 목표로 제작에 나설 계획이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생물권보전 활용 업체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유네스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 업체를 모집한다.

도는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농·수·축·임산물 및 천연자원과 가공품에 대해 브랜드 활용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천연자원과 이를 가공한 제품을 직접 생산·가공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이다.

신청된 생산제품은 서류 및 현장심사와 유네스코 등록유산위원회(생물권분과)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백금탁기자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요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3년생
감평	1,3,4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유라실생	3,4년생
병자묘	1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앵무목, 천혜향, 왕금향, 윈터프린스, 제라온(레온),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시라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례조생, 궁천, 궁천변이지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미니향·레온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요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부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짐.

·카라향	1, 4년생	·궁천변이	1, 2년생
·유라실생	2, 3,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 3년생
·레드향(무목)	1, 2, 3년생	·한라봉	5, 6년생
·천혜향(무목)	2, 3, 4년생	·하갈	2, 3, 7, 8년생
·궁천	1, 2, 3, 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